

선동열 “소통”... 선수들 “분통”



지난 2013년 가을, KIA 불펜에서 큰소리가 나왔다. 에이스 윤석민(볼티모어)이 팀의 사정상 마무리 역할을 하고 있던 때이다.

2013년은 야구선수 윤석민에게 중요한 해였다. 윤석민은 2011년 투수 4관왕을 달성했지만 구단의 방침에 따라 포스팅 자격을 얻지 못했다.

구단이 신임 선동열 감독의 의중에 따라 2년의 시간을 더 주 문한 것이다. 윤석민은 2013시즌이 끝난 뒤 FA(자유계약)로 해외 진출을 하는 것으로 진로를 수정해야 했다.

하지만 2013년은 윤석민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지 못했다. 연봉협상 과정부터 삐걱거렸다. 매년 조용히 도장을 찍었던 윤석민이 FA를 앞두고 있는 만큼 팀 에이스로서의 자존심을 세워 주라고 말을 꺼냈다. 두 차례의 요청과 으름장에도 같은 금액의 계약서가 돌아오자 윤석민은 더 이상의 얘기 없이 바로 도장을 찍었다.

중요한 쇼케이스 시즌이었지만 윤석민도 제대로 실력발휘를 하지 못했다. WBC 후유증으로 뒤늦게 시즌을 시작했고, 팀 상황으로 마무리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등 쉽지 않은 시즌이 전개됐다. 일은 시즌 막바지에 터졌다. 해외 스카우트들이 윤석민의

군입대 선언한 안치홍에 ‘임의 탈퇴’ 언급

과정 없는 극단 발언에 구단·선수단 발각

반성문 게재 한지 얼마나 됐다고 또 시골

등판을 보기 위해 대거 잠실을 찾았던 날이다. 마무리로 보직을 옮긴 탓에 불펜에서 대기하고 있던 윤석민은 조심스레 등판을 요청했다. 결론적으로 윤석민은 이날 등판을 하지 못했다. 일방적인 경기 흐름 속 윤석민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벤치까지 전달되지 못한 것이다. 이날 구단과 선수, 선수와 감독, 코치진과 감독의 ‘불통’이 터졌다.

2014년 가을, KIA 감독실에서 ‘임의탈퇴’라는 단어가 나왔다.

시즌 막바지 내야수 안치홍의 군입대가 KIA에는 비싼한 관심사가 됐다. 김선빈에 이어 내야의 핵 안치홍의 공백이 불가피해지자 구단이 마음을 돌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비됐던 계획이기도 했고, 쉽던 6년의 시

간과 대표팀 탈락 논란으로 심신이 지친 안치홍은 군입대를 선택했다. 고민 끝에 군입대를 허락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 구단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방법을 썼다. 감독이 아닌 야구 대선배의 입장으로 후배의 이야기를 듣고 다독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치홍을 감독실로 보낸 것이다.

그러나 감독실에서 나온 얘기는 “군입대를 고집하면 임의탈퇴도 가능하다”였다. 예상치 못했던 ‘임의탈퇴’라는 단어에 구단 사무실이 발각 뒤집혔다. ‘소통’을 화두로 삼았던 KIA였던 만큼 선수단을 비롯한 내부가 술렁거렸다. 이런저런 소란 속에서도 구단과 안치홍은 아름다운 작별 수순을 밟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선동열 감독은 22일 팬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또 다시 선수들과의 ‘소통’을 약속했다. 그러나 ‘임의탈퇴’의 후유증이 깊게 남아있다. 선 감독이 앞선 3년 동안 언급했던 얘기도 ‘소통’이었기 때문에 이번 재계약에 대한 반응은 냉담할 수밖에 없다.

선수들의 마음을 얻고 팬심을 달래기 위한 선 감독의 진정성, 현재의 통렬한 비난을 정면돌파할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KIA의 상처와 실재는 반복될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경문, 역스윙 다시한번... 2010·2013 준 PO 두차례 경험...NC, 오늘 LG와 사활 건 한판



창단 2년 만에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무대에 오른 NC 다이노스가 안방에서 LG 트윈스에 2연패를 당하고 준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였다.

5전3승제로 치러진 역대 7차례 준플레이오프에서 한 팀이 1, 2차전 승리를 모두 가져간 적은 네 번 있었다.

이 중 두 차례는 2연승한 팀이 결국 플레이오프에도 나갔다. 하지만 NC도 희망을 버리기에는 이르다. 두 차례는 2연패한 팀이 남은 세 경기 승리를 싹쓸이하는 이른바 ‘리버스 스윕’에 성공하며 시리즈 전적 3승2패로 플레이오프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공교롭게도 두 차례 모두 두산이 해냈다. 두산은 2010년 롯데, 지난해 넥센과의 준플레이오프에서 먼저 2패를 당했다가 세 판을

내리 이기는 독심을 보여줬다.

벼랑 끝에 몰린 NC의 김경문 감독은 2010년 가을의 추억을 떠올린다. 당시 두산 사령탑으로서 역전극을 진두지휘한 것이 김 감독이었다.

김 감독이 이끌던 두산은 4년 전 준플레이오프에서 롯데와 만나 잠실 홈 경기에서 먼저 2경기를 내줬다. 1차전에서는 9회 전준우의 결승 홈런 등으로 5-10으로 졌고, 연장전까지 치른 2차전에서는 10회 이대호에게 결승 3점 홈런을 얻어맞아 1-4로 무릎꿇었다.

하지만 이후 사직구장으로 옮겨 치른 원정 3차전에서 6-5로 승리해 기사회생하고 4차전에서도 11-4로 이겨 균형을 맞췄다. 기세가 오른 두산은 마지막 잠실 5차전에서 다시 11-4로 승리, 플레이오프에 오르는 기적을 완성했다.

물론 ‘역스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1986년부터 지난해까지 5전3승제 플레이오프는 총 24차례 치러졌는데 이 가운데 한 팀

이 1, 2차전에서 모두 승리한 것은 13번 있었다. 이 중 2연패한 팀이 내리 3연승을 거두고 역전한 사례는 1996년 현대와 2009년 SK 뿐이었다. 오히려 3연승으로 시리즈가 조기에 끝난 적이 7차례나 된다.

홈에서 2패를 당한 NC는 김 감독의 경험을 믿는다. 김 감독은 젊은 선수들이 생애 첫 가을야구의 부담을 털어내고 정규시즌 3위를 일군 제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김 감독에게는 4년 전 두산에서 기적을 함께 일군 베테랑 내야수 손시헌과 외야수 이종욱도 있다.

김 감독은 22일 준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LG에 2-4로 패한 뒤 “졌지만 선수들이 열심히 잘했으니가 기죽지 않고 서울 가서 기분 좋게 3차전을 하겠다”면서 “3패로 끝나면 섭섭하니까 일단 1승을 거두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연합뉴스

“오승환, 팔 아껴라”

한신, 일본시리즈 대비 4일간 휴식 제공

오승환(32·한신 타이거스)이 일본시리즈를 대비해 팔을 아낀다.

일본 스포츠닛폰은 23일 “오승환이 4일 연속 공을 던지지 않았다”며 “정규시즌 포함 최근 한신이 치른 11경기에서 연투한 오승환이 일본시리즈에서 활약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환은 요미우리 자이언츠와의 일본 프로야구 센트럴 리그 클라이맥스시리즈 파이널스테이지가 끝난 18일 등판하고 나서 22일까지 나흘 동안 공을 던지지 않았다. 무리한 등판 일정을 소화하느라 지친 팔을 보호하려는 의도다.

오승환은 한신이 치열한 2위 다툼을 펼치던 정규시즌 막판 5경기에서 연속 등판해 7.1이닝을 던졌고, 클라이맥스시리즈 퍼스트스테이지와 파이널스테이지 6경기에 모두 등판해 8.1이닝을 소화했다.

중간에 경기가 없는 날도 있었지만 한신이 치른 최근 11경기에서 모두 등판하는 땀뻑한 일정을 소화했다. 25일 시작하는 일본시리즈를 앞두고 한신과 오승환은 ‘오른팔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포스트시리즈를 통해 오승환이 가치를 다시 한 번 증명하면서 오승환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가 되고 있다. 22일 고시엔 구장에서 열린 한신 팀 훈련에서는 오승환의 오른 팔꿈치 보호대가 화제를 불렀다.

스포츠닛폰은 “한신 수호신 오승환이 팔꿈치 보호를 위한 검은 보호대를 차고 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

오승환은 “기온이 낮아져 팔꿈치 보호를 위해 이를 착용했다. 한국에서도 이맘때 사용했던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도 팀(삼성)을 5차례 우승으로 이끈 수호천사가 추위로부터 팔을 보호할 때 사용한 필수 아이템”이라고 보호대에 대한 설명을 더한 후 “오승환이 일본시리즈에서 다시 맹활약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캔자스 시티 반격의 1승

메이저리그 캔자스시티의 로렌조 케인(6번)이 23일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월드시리즈 2차전 홈 경기에서 6회말 빌리 버틀러의 안타 때 홈에 들어오고 있다. 캔자스시티가 6회말 대거 5점을 뽑아내며 7-2로 승리했다.

/연합뉴스